

기자간담회

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,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

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,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시대의 기운처럼 일어나야 할 문제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깃발을 흔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언론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정책을 내야지 기사실 바꾸고 오보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전선을 확대시킬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. 저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언론이 긴장관계가 돼 어렵더라도 작은 노력으로 평가해 주십시오. 이것이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

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모두 불편하더라도 돕는다는 기분으로 해줬으면 하고, 나중에 지나고 나면 '한국의 취재문화는 이렇구나'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